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의 구인타당화

원 영 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이 연구는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자격 조건을 수립하고, 수립된 조건을 바탕으로 평가문항을 제작한 후, 그 문항에 대한 구인타당화를 도모함으로써 음악(국악)영재의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술영재교육의 내실화 및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의 문항분석을 위하여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추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최종 41문항을 수립하였고, 전통음악을 포함한 음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심리학적 구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평가문항에 대한 내적일관성 신뢰도 추정 결과 높은 신뢰도 수준($r=.974$)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이 영재교육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교사 평가도구임을 반영해준다.

주제어: 음악영재 담당교사, 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 구인타당화

I. 서 론

국내 영재교육 현장에 투입된 교사관찰추천제는 예술영재 선발의 전권을 추정 영재의 담당교사에게 부여한 방식이다. 영재관별 분석 연구의 결과, 영재성 선별에 대한 교사의 관찰 추천 예측률은 70~80%의 적중률을 보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또한 추정 영재의 부모가 놓칠 수 있는 예술영재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선별할 수 있는 존재가 교사라는 점(원영실, 2011, 2013)을 고려할 때, 영재담당교사로서의 전문적인 기량 및 품성을 지닌 교사는 영재성 선별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누구를 예술영재로 선발할 것인지’에 앞서 시급하게 연구되어야 할 주제는 ‘그러한 예술영재를 누가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가’의 부분이다. 예술영재성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고 본인 스스로 담당교사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영재교육을 담당할 수는 없다. 자질

교신저자: 원영실(yewon97@hanmail.net)

*이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2014)로 수행된 ‘예술영재교사 평가문항 개발: 전통음악 및 서양음악 분야를 중심으로’의 일부분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하였음.

을 갖추지 못한 교사는 예술영재에 대한 타당한 선별 및 교육과정 운영, 영재교육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한계를 보일 것이다. 환언하면 예술영재교사가 지녀야 할 다면적인 평가지표에 높은 반응점수를 보이는 교사를 가려내어 해당 영재교육에 투입할 때, 예술영재교육의 결과는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영재담당교사 평가문항 개발이 이렇듯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재교육 연구에서 예술영재교사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더욱 확대되는 교사관찰추천 선발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자격을 지닌 예술영재교사를 타당하게 가려낼 수 있는 평가문항의 개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예술 영역 중에서 특별히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에 대한 구인타당화를 수행함으로써 음악(국악)영재의 선별 및 관별, 교육과정 운영, 최종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 교사를 가려내어 해당 영재교육에 투입하고, 그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예술영재교육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유능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세부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의 자격조건 탐색 및 평가지표 관련 연구(원영실, 김은경, 2014)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국내외 교사자격 관련 법 규정 및 다면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분과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특성을 수렴하는 데에 그쳤다. 따라서 실제 예술영재 교육 현장에 투입할 영재교사를 가려내고 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수렴된 구인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평가문항이 개발되어야 한다. 나아가 평가문항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제시된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 연구의 실질적인 목적은 구인타당화 검증을 거침으로써 실제 영재교육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II. 이론적 배경

최적의 영재교육과정이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영재담당교사의 자질이 부족하면 투입된 교육의 성공적인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영재담당교사의 자격 조건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김정휘(1996)에 의하면, 영재담당교사는 본인 스스로 영재성을 지녀야 하며 영재교육의 본질, 영재의 특성 및 발달, 영재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 영재교수학습 능력, 영재에 대한 열성을 지녀야 한다. 박경희와 서혜애(2007)는 영재담당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를 지식, 능력, 상황 기반의 세 가지 전문성으로 구분하였다. 지식기반 전문성은 전공교과 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을 의미하며, 능력기반 전문성은 영재 특성 및 관별, 영재교수학습, 영재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영재교육평가 및 상담능력 등을 의미한다. 또한 상황기반 전문성은 학교장과 동료 교사, 학부모, 지역 사회에서의 의사소통 및 협력관계, 대인관계 등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을 획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박창언과 서혜애(2010)는 세 가지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영재담당 교원자격에 관한 법 규정을 검토하였다. 첫째, 영재는 일반 학생과 다른 특성을 지니므로 영재담당교사는 일반교사와는 다른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영재는 그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요구하므로 영재담당교사는 그들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법 관련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영재교육 대상자는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능력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영재교육기관별로 영재담당교사의 자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영재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전문성에 대한 정보를 준다. 바람직한 영재교사상을 탐색한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Vidergor, & Eilam, 2012)에 의하면, 영재담당교사의 자질은 인지적, 개인적,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인지적 특성은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의미하며, 개인적 특성은 교사의 성품, 교육학적 특성은 적절한 교수학습 처치 능력을 말한다. 특히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인지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였고, 개인적 특성은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영재담당교사의 선발 시 다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영재담당교사 자격 규정을 보면, 영재교육과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영재를 위한 수업방법 활용 능력, 영재성의 이해가 지표로 명시되어 있다 (Croft, 2003). 특히 영재담당교사는 영재성 발현 및 특성, 영재의 개인차, 영재 판별 및 평가, 영재교육의 철학과 이념, 영재교육과정, 영재교수학습, 영재교육의 이슈와 쟁점, 영재교육정책 등을 이해해야 한다(Karnes, & Stephens, 2008).

이렇듯 영재담당교사의 자질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영재담당교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교과지식 전문성과 추정 영재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지식 전문성, 영재담당교사로서의 적성 및 태도를 지녀야 한다. 특히 일반 교사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교과지식 전문성을 보유하고, 영재성 이해 및 판별, 영재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을 포함한 영재교육 관련 교육학적 지식을 알고 적용하며, 영재에 대한 애정 및 열정을 포함한 영재담당교사로서의 적성 및 태도를 지녀야 한다.

상기에서 논의한 영재담당교사의 자격 조건은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는 해당 분과에 대한 높은 수준의 교과지식 전문성과 영재의 잠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지식 전문성,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열정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자격 기준에 관한 논의(원영실, 김은경, 2014)가 전개되었다. 전통음악 및 서양음악 영재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탐색한 결과,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자질에 대한 평가지표는 3개의 대영역과 8개의 중영역, 18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었고 그에 따른 세부 특성들이 수렴되었다. 3개의 대영역 지표는 ‘음악(국악)영재 교과지식 전문성, 음악(국악)영재 교육지식 전문성, 음악(국악)영재 교사적성 및 태도’이며, 8개의 중영역 지표는 ‘음악(국악)교과에 대한 지식, 음악(국악)연주 능력, 학습자 특성 이해, 학습(수업) 이해, 교직가치관,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열정과 동기,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기술, 자기개발능력’이다. 18개의 소영역 지표는 ‘음악(국악)교과 관련 지식, 교사의 전공영역 외 음악(국악)관련 배경지식, 청음능력, 연주능력(기악 및 가창 능력), 학습자의 음악적 발달과 개인차 이해, 학습(수업)준비, 학습(수업)실행, 수업 평가 및 활용, 음악(국악)영재교육 관련 전문지식, 교직가치에 대한 신념,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 학습자의 인권과 의견을 존중,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애정,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믿음과 기대, 교사효능감, 적극적 청정과 소통, 바른 문법과 단어 사용, 자기개발 노력’이다. 이러한 지표는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자질 및 현재 수준을 보고해주는 평가문항의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담당교사이다. 음악(국악)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의 투입 교사를 포함하여 예술계 중·고등학교에서 음악(국악)전공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연구대상이다. 특히 시·도 교육청에서 주로 중등학교 대상의 음악(국악)영재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등연령 학생 담당교사를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표본 집단은 서울소재 S예술 중·고등학교와 NTM 중·고등학교, NTA예술 중·고등학교, 경기도 소재 K예술 중·고등학교에서 음악(국악)전공생을 담당하는 추정 음악(국악)영재의 교사이다. 이들을 표본 집단으로 선정한 이유는 상기 학교의 음악(국악)전공생이 일반학교 학생에 비해 해당 영역에 대한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학생들은 높은 경쟁률 속에서 상기 학교에 선발되었고, 해당 분과 대학으로 진학 후, 국악이나 서양음악 영역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추정 음악(국악)영재를 담당하는 교사가 곧 이 연구의 대상인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집은 2014년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총 3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 178부의 응답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응답 중에서 불성실하거나 무응답한 3명을 제외한 후, 총 175명의 응답이 문항분석을 위하여 활용되었다. 먼저 유효 사례에 해당되는 연구대상자 175명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특성

구 분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빈도(명)	비율(%)
교사 제직 기간	5년 미만	22	12.6
	5년 이상~10년 미만	45	25.7
	10년 이상~20년 미만	67	38.3
	20년 이상~30년 미만	24	13.7
	30년 이상~40년 미만	3	1.7
	40년 이상	1	0.6
	무응답	13	7.4
소 계		175	100
학생의 전공레슨 시작 시기	유치원(혹은 그 이전 시기)	13	7.4
	초등학교 1~3학년	15	8.6
	초등학교 4~6학년	71	40.6
	중학교 시기	76	43.4
	고등학교 시기	0	0
소 계		175	100
학생의 전공레슨 지속 기간	6개월 미만	6	3.4
	1년 미만	19	10.9
	1년 이상~2년 미만	45	25.7
	2년 이상~3년 미만	45	25.7
	3년 이상	59	33.7
무응답	1	0.6	
소 계		175	100
교사 학력	대학원 졸업	158	90.3
	대학 졸업	17	9.7
	소 계	175	100

연구대상자의 평균 재직 기간은 12년이고, 10년 이상~20년 미만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학생의 전공수업 시작 시기는 중학교시기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것은 표집 대상이 음악(국악)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나아가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예술계 중학교에 재직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학생의 전공수업 지속 기간은 3년 이상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연구대상자가 담당 학생의 전공 우수성과 그들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반영해준다. 교사의 학력은 대학원 졸업에 응답한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이러한 점 역시 연구대상자인 교사의 전문성을 반영해준다. 국악 및 서양음악 분과별 연구대상자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국악 및 서양음악 분과별 연구대상자 특성

구 분	국악영재 담당교사		서양음악영재 담당교사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교사 재직 기간	5년 미만	13	15.3	9	10.0	
	5년 이상~10년 미만	28	32.9	17	18.9	
	10년 이상~20년 미만	30	35.3	37	41.1	
	20년 이상~30년 미만	5	5.9	19	21.1	
	30년 이상~40년 미만	-	-	3	3.3	
	40년 이상	-	-	1	1.1	
	무응답	9	10.6	4	4.5	
	소 계	85	100	90	100	
	교사의 전공	전통음악 기악	74	87.0	-	-
		전통음악 성악	7	8.2	-	-
전통음악 작곡		2	2.4	-	-	
전통음악 이론		2	2.4	-	-	
서양음악 기악		-	-	70	77.8	
서양음악 성악		-	-	18	20.0	
서양음악 작곡		-	-	2	2.2	
서양음악 이론		-	-	-	-	
기타		-	-	-	-	
소 계	85	100	90	100		
학생의 전공 레슨 시작 시기	유치원(혹은 그 이전시기)	1	1.2	12	13.4	
	초등학교 1~3학년	2	2.4	13	14.4	
	초등학교 4~6학년	19	22.3	52	57.8	
	중학교 시기	63	74.1	13	14.4	
	고등학교 시기	-	-	-	-	
	소 계	85	100	90	100	
학생의 전공 레슨 지속 기간	6개월 미만	2	2.4	4	4.5	
	1년 미만	10	11.8	9	10.0	
	1년 이상~2년 미만	14	16.4	31	34.4	
	2년 이상~3년 미만	29	34.1	16	17.8	
	3년 이상	29	34.1	30	33.3	
	무응답	1	1.2	-	-	
소 계	85	100	90	100		
교사 학력	대학원 졸업	69	81.2	89	98.9	
	대학 졸업	16	18.8	1	1.1	
	고등학교 졸업	-	-	-	-	
	소 계	85	100	90	100	

국악영재 담당교사의 특성을 보면, 교사의 평균 재직 기간은 9년 8개월, 10년 이상~20년 미만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교사의 전공은 국악기악이 월등히 높았고, 국악 성악과 작곡, 이론 전공자는 드물었다. 전공레슨 시작 시기는 중학교 시기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전공레슨 지속 기간은 2년 이상~3년 미만과 3년 이상의 응답률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교사의 학력은 대학원 졸업이 81.2%로 대학졸업에 비해 높았다. 서양음악영재 담당교사의 특성을 보면, 교사의 평균 재직 기간은 13년 9개월, 10년 이상~20년 미만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교사의 전공은 기악전공이 높았고, 작곡 및 이론 전공은 드물었다. 전공레슨 시작 시기는 초등학교 4~6학년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레슨 지속 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3년 이상의 응답률이 그 뒤를 이었다. 교사의 학력은 대학원 졸업이 전체의 98.9%로 월등하게 높았다.

두 분과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교사의 평균 재직 기간은 서양음악 분과의 기간이 더 길다. 교사의 전공은 두 영역 모두 기악전공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 전공레슨 시작 시기는 서양음악 분과의 시작 시기가 국악 분과보다 조금 빠르다. 전공레슨 지속 기간은 두 분과 모두 3년 이상에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교사학력 또한 두 분과 모두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영재담당교사의 전문성을 반영한다.

2. 측정 도구

이 연구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원영실, 김은경, 2014)를 통해 수립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는 3개의 대영역, 8개의 중영역, 18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18개의 소영역은 다양한 세부 지표로 구성되었고, 세부 지표에 대한 델파이 기법을 투입한 결과, 음악(국악)영재 교과지식 전문성의 세부 지표 19문항, 음악(국악)영재 교육지식 전문성의 세부 지표 36문항, 음악(국악)영재 교사 적성 및 태도의 세부 지표 33문항, 이렇게 총 88문항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각 문항의 내용은 연구진에 의해 다수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쳤고, 이 연구의 측정도구로서 문항타당화를 위한 최종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종 구성된 평가문항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 표 3 >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의 구성 내용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세부지표
음악(국악)영재 교과지식 전문성	- 음악(국악)교과에 대한 지식	- 음악(국악)교과 관련 지식	5문항
		- 교사의 전공영역 외 음악(국악)관련 배경지식	3문항
	- 음악(국악)연주 능력	- 청음능력	2문항
		- 연주능력(기악 및 가창 능력)	9문항
음악(국악)영재 교육지식 전문성	- 학습자 특성 이해	- 학습자의 음악 발달과 개인차 이해	7문항
	- 학습(수업) 이해	- 학습(수업) 준비	7문항
		- 학습(수업) 실행	10문항
		- 수업 평가 및 활용	4문항
		- 음악(국악)영재교육 관련 전문지식	8문항

음악(국악)영재 교사 적성 및 태도	- 교직가치관	- 교직가치에 대한 신념	4문항
		-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	3문항
		- 학습자의 인권과 의견을 존중	5문항
	-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열정과 동기	-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애정	4문항
		-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믿음, 기대	5문항
		- 교사효능감	2문항
	-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기술	- 적극적 경청과 소통하기	3문항
		- 바른 문법과 단어사용	1문항
		- 자기계발	6문항

<표 3>의 내용으로 구성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이루어진 5단계 Likert식 척도이며, 교사가 직접 자기 보고하는 형태의 평가지이다.

3. 연구 과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영재담당교사 및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자격 조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문항초안을 구성하였다. 또한 문항초안에 대한 다수의 논의와 수정 과정을 거친 후 표집을 위한 평가지를 제작하였다. 셋째, 현재 교육현장에서 활동 중인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였다. 넷째, 표집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에 대한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타당도 추정을 위해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항신뢰도 추정을 위해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문항분석 결과에 따라 선별된 타당한 문항을 중심으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의 최종본을 구성하고 실제 교육현장 적용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의 구인타당화를 위해 SPSS 20.0 및 AMOS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평가문항의 세부 내용이 몇 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요인 구조가 지지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지수인 χ^2 ,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 -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의 수치들을 해석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의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검사를 구성하는 부분검사나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하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문항신뢰도 추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의 타당도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 개발의 핵심은 구인타당화에 있다. 구인타당도 검증은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속성이나 성질을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하여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후, 개발된 문항의 점수가 조작적 정의에서 규명한 심리적 구인을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성태제, 2005).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의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탐색적 요인분석

1)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과지식 전문성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과지식 전문성 문항이 몇 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최대우도법에서 나타난 χ^2 , df , 그리고 N 을 통해 RMSEA 값을 산출한 후 적합도를 판별하였다. 이 경우 적합도 지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RMSEA 값의 변화량이 .01보다 클 때 요인의 수를 결정한다. <표 4>에서 보듯이 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형의 적합도를 판별하는 RMSEA 값은 점진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나 3요인의 경우 적합도 검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과지식 전문성 문항은 2요인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과지식 전문성 요인 모형의 적합도

요인 모형	χ^2	df	p	RMSEA	RMSEA 변화량
1요인 모형	235.123	35	.000	.181	
2요인 모형	44.324	26	.014	.064	1요인 → 2요인 : .117
3요인 모형	22.826	18	.197	.039	2요인 → 3요인 : .025

2요인 모형 구조를 채택한 결과, <표 5>와 같이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과지식 전문성 문항은 1요인 6문항, 2요인 4문항으로 묶였다.

<표 5>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과지식 전문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교과지식 요인 1	교과지식 요인 2
교과지식 8	.948	
교과지식 10	.875	
교과지식 7	.866	
교과지식 9	.822	
교과지식 5	.706	
교과지식 6	.689	
교과지식 3		-.952
교과지식 1		-.863
교과지식 2		-.818
교과지식 4		-.644

최종적으로 수립된 교과지식 전문성 문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과지식 전문성의 최종 문항

영역	요인	문항 번호	문항 내용
교과 지식 전문성	요인 1	5	교사는 독보 및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다.
		6	교사는 일반 음악교사보다 높은 수준의 변주 능력을 가지고 있다.
		7	교사는 앙상블과 합주를 잘 지도할 수 있다.
		8	교사는 새로운 음색을 만들 수 있다.
		9	교사는 악곡을 재해석하여 독창적(교사 개인의 생각과 감정, 정서를 음악적으로 구성하여)으로 연주(가창 및 기악)할 수 있다.
	10	교사는 일반 음악교사보다 높은 수준의 멜로디 재현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교과 지식 요인 2	1	교사는 음악(국악)교과의 기초 지식 및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2	교사는 음악(국악)교과의 주요 사조와 철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3	교사는 음악(국악)교과의 구조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4	교사는 음악(국악)교과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습득하고 있다.
2		4	교사는 음악(국악)교과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습득하고 있다.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과지식 전문성의 최초 문항은 ‘음악(국악)교과에 대한 지식, 음악(국악)연주 능력’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음악(국악)교과에 대한 지식은 ‘음악(국악)교과 관련 지식, 교사의 전공 외 음악(국악)관련 배경지식’의 소영역으로, 음악(국악)연주 능력은 ‘청음능력, 연주능력(기악 및 가창 능력)’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요인 분석 과정에서 묶이지 않는 문항들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연구진은 여러 번의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다수의 문항을 재구성해 나갔다. <표 6>에서 보듯이 최초 설정된 음악(국악)교과에 대한 지식과 음악(국악)연주 능력은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속성으로 지지되었다. 즉, <표 6>에 나타난 교과지식 요인 1은 ‘연주능력(기악 및 가창 능력)’을 의미하고, 교과지식 요인 2는 ‘음악(국악)교과 관련 지식 및 교사의 전공 외 음악(국악)관련 배경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음능력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교과지식 전문성 문항에 대한 델파이 기법의 투입 결과 청음능력은 교사가 지녀야 할 주요 속성이었다. 그러나 요인분석의 결과 청음능력은 채택되지 않았다. 즉, 음악(국악)분과 전문가들은 청음능력을 영재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주요 속성으로 제시하였지만, 실제 교육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표집 결과 청음능력은 배제되었다. 비록 요인분석의 결과 교과지식 전문성의 세부 속성에서 배제되었지만, 음악(국악)영역에서의 청음능력은 그 대상이 영재학생이든, 혹은 영재담당교사이든, 매우 중요한 속성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주요 구인으로 청음능력을 채택할지의 여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2)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육지식 전문성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육지식 전문성 문항이 몇 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지 살펴보았다. <표 7>에서 보듯이 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형의 적합도를 판별하는 RMSEA 값은 점진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나 3요인의 경우 적합도 검정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육지식 전문성 문항은 2요인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7>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육지식 전문성 요인 모형의 적합도

요인 모형	χ^2	df	p	RMSEA	RMSEA 변화량
1요인 모형	560.152	77	.000	.190	
2요인 모형	110.285	64	.000	.064	1요인 → 2요인 : .126
3요인 모형	69.322	52	.054	.044	2요인 → 3요인 : .02

2요인 모형 구조를 채택한 결과, <표 8>과 같이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육지식 전문성 문항은 1요인 7문항, 2요인 7문항으로 수렴되었다.

<표 8>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육지식 전문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요 인	
		교육지식 요인 1	교육지식 요인 2
교육지식 3		.934	
교육지식 4		.924	
교육지식 1		.887	
교육지식 2		.870	
교육지식 6		.753	
교육지식 7		.718	
교육지식 5		.696	
교육지식 11			.946
교육지식 10			.886
교육지식 12			.858
교육지식 9			.813
교육지식 8			.735
교육지식 13			.655
교육지식 14			.596

최종적으로 수렴된 교육지식 전문성 문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육지식 전문성의 최종 문항

영역	요인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교육 지식 전문성	교육 지식 요인 1	1	음악(국악)영재 수업 시, 교사는 학습의 촉진자 역할을 담당한다.
		2	수업 시, 교사와 영재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3	교사는 음악(국악)영재에서 적절한 교육적 지원과 피드백을 제공한다.
		4	교사는 영재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5	교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6	수업 시, 교사는 영재에게 적절한 질문을 한다.
		7	교사는 수업의 방향 및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자의 의견을 묻고 반영한다.

교육 지식 전문성	교육 지식 요인 2	8	교사는 음악(국악)영재의 선별 및 관별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다.
		9	교사는 음악(국악)영재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다.
		10	교사는 음악(국악)영재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해한다.
		11	교사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다.
		12	교사는 미성취 음악(국악)영재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음악(국악)영재에 대하여 알고 있다.
		13	교사는 우리나라 영재교육 정책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14	교사는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를 해 본 적이 있다.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육지식 전문성의 최초 문항은 ‘학습자 특성 이해, 학습(수업) 이해’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었고, 학습자 특성 이해는 ‘학습자의 음악적 발달과 개인차 이해’의 소영역으로, 학습(수업)이해는 ‘학습(수업)준비, 학습(수업)실행, 수업 평가 및 활용, 음악(국악)영재교육 관련 전문지식’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요인분석 과정에서 서로 묶이지 않는 다수의 문항들이 발견되었고, 그에 따라 연구진은 여러 번의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을 재구성해 나갔다. <표 9>에서 보듯이 최초 설정한 중영역 지표 중 학습(수업) 이해는 교사가 지녀야 할 속성으로 지지되었으나, 학습자 특성 이해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특히 소영역 중에서 학습(수업)실행과 음악(국악)영재교육 관련 전문지식은 지지되었으나, 학습자의 음악적 발달과 개인차 이해, 학습(수업)준비, 수업 평가 및 활용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즉, <표 9>에 나타난 교육지식 요인 1은 ‘학습(수업)실행’을 의미하고, 교육지식 요인 2는 ‘음악(국악)영재교육 관련 전문지식’을 의미한다.

3)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적성 및 태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적성 및 태도 문항이 몇 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지 살펴보았다. <표 10>에서 보듯이 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형의 적합도를 판별하는 RMSEA 값은 점진적으로 좋아진다. 2요인 모형과 3요인 모형의 경우 RMSEA 값은 .10 보다 크기 때문에 나쁜 적합도라 볼 수 있다. 적합한 요인은 4요인 모형부터 할 수 있는데, 4요인 모형부터 7요인 모형 중 RMSEA 값이 좋으면서 그 값의 변화량이 큰 요인 모형은 6요인 모형이다. 따라서 6요인 모형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0>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적성 및 태도 요인 모형의 적합도

요인 모형	χ^2	df	p	RMSEA	RMSEA 변화량
1요인 모형	758.746	170	.000	0.141	
2요인 모형	494.268	151	.000	0.114	1요인 → 2요인 : 0.027
3요인 모형	368.392	133	.000	0.101	2요인 → 3요인 : 0.013
4요인 모형	275.209	116	.000	0.089	3요인 → 4요인 : 0.012
5요인 모형	207.941	100	.000	0.079	4요인 → 5요인 : 0.01
6요인 모형	141.335	85	.000	0.062	5요인 → 6요인 : 0.017
7요인 모형	104.863	71	.006	0.052	6요인 → 7요인 : 0.01

6요인 모형 구조를 채택한 결과, <표 11>과 같이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적성 및 태도

문항은 1요인 5문항, 2요인 2문항, 3요인 3문항, 4요인 3문항, 5요인 2문항, 6요인 2문항으로 수렴되었다.

<표 11>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적성 및 태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적성태도 10	.914					
적성태도 12	.775					
적성태도 9	.722					
적성태도 11	.636					
적성태도 8	.608					
적성태도 13						
적성태도 14		-.977				
적성태도 15		-.857				
적성태도 19			.768			
적성태도 20			.679			
적성태도 18			.578			
적성태도 17						
적성태도 2				.866		
적성태도 1				.600		
적성태도 3				.534		
적성태도 5					.749	
적성태도 4					.715	
적성태도 7						.724
적성태도 16						.551
적성태도 6						

최종적으로 수렴된 교사 적성 및 태도 문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적성 및 태도의 최종 문항

영역	요인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적성 및 태도	적성 태도 요인 1	8	교사는 음악(국악)영재를 사랑으로 대한다.
		9	교사는 영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노력한다.
		10	교사는 영재의 진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11	교사는 음악(국악)영재의 성장한 모습을 통해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12	교사는 음악(국악)영재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한다.
	적성 태도 요인2	14	교사는 동료 교사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15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협력한다.
		18	교사는 교육 현안의 주요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적성 태도 요인 3	19	교사는 학회 및 교사연수, 음악회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음악(국악)영재 교육과 관련된 최신 이론 및 동향을 파악한다.
		20	교사는 음악(국악)영재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적성 및 태도	적성태도	1	교사는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인	2	교사는 영재에게 강조한 가치 및 신념을 스스로 지킨다.
	4	3	교사는 영재 교육에 대한 교육 철학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적성태도	4	나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요인5	5	나는 교직에 대하여 기꺼이 헌신한다.
	적성태도	7	교사는 영재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자율성을 존중한다.
요인6	16	교사는 긍정적 언어와 표현을 사용한다.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적성 및 태도의 최초 문항은 ‘교직가치관,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열정 및 동기,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기술, 자기계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교직가치관은 ‘교직가치에 대한 신념,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 학습자의 인권과 의견을 존중’의 소영역으로,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열정 및 동기는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애정,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믿음과 기대, 교사효능감’의 소영역으로,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기술은 ‘적극적 경청과 소통하기, 바른 문법과 단어의 사용’의 소영역으로, 자기계발은 ‘자기계발노력’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요인분석 과정에서 서로 묶이지 않는 문항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그에 따라 연구진은 여러 번의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을 재구성해 나갔다. <표 12>에서 보듯이 최초 설정한 교사 적성 및 태도의 중영역인 교직가치관,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열정 및 동기,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기술, 자기계발 노력은 모두 지지되었다. 그러나 소영역 중 교직가치에 대한 신념,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애정, 적극적 경청과 소통하기, 자기계발노력은 지지되었으나, 그 외 학습자 인권과 의견을 존중,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믿음과 기대, 교사효능감, 바른 문법과 소통하기의 영역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즉, <표 12>에 나타난 적성태도 요인 1은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애정’, 요인 2는 ‘적극적 경청과 소통하기’, 요인 3은 ‘자기계발노력’, 요인 4는 ‘교직가치에 대한 신념’, 요인 5는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 요인 6은 최초 설정한 소영역이 얽혀져 있는 새로운 요인(학습자의 인권과 의견을 존중 + 바른 문법과 단어 사용)을 의미한다.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적성 및 태도 문항에 대한 델파이 기법의 투입 결과 교사효능감은 영재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주요 속성이었다. 그러나 요인분석의 결과 채택되지 않았다. 교사효능감은 소영역 특성들을 모두 아우르는 속성이자 세부 특성들의 결과로 산출될 수 있는 구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요인분석의 결과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주요 구인인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교사효능감을 세부 특성으로 투입할지의 여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나.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수립된 평가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우선, χ^2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이 개발된 초기,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활용된 방법이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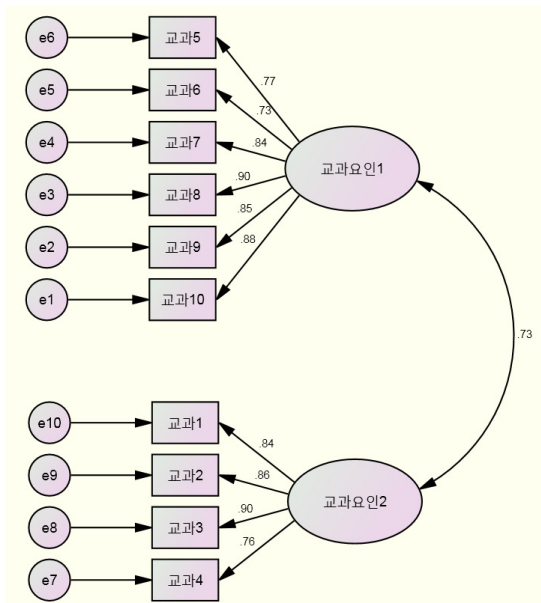
러나 χ^2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상당히 엄격하여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어 제외하였다(김주환 외, 2009).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적합도 지수중에서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였으며 적합도 평가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비표준부합치(TLI), 비교부합지수(CFI), 근사평균오차제곱근(RMSEA)를 통한 모형의 적합도 추정을 활용하였다. Browne과 Cudeck(1993)에 따르면, RMSEA 값은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08사이면 괜찮은 적합도이며, .10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이다. TLI와 CFI의 경우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다(Bentler, 1990).

1)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과지식 전문성

앞서 교과지식 전문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2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2요인 구조가 지지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모형을 통해 추정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TLI=.979, CFI=.987, RMSEA=.054로 나타났다. 즉, 적합도 지수를 통해 살펴본 이 연구의 모형은 괜찮은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와 모형은 다음의 <표 13> 및 [그림 1]과 같다.

<표 13> 교과지식 전문성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모형	50.942	34	.979	.987	.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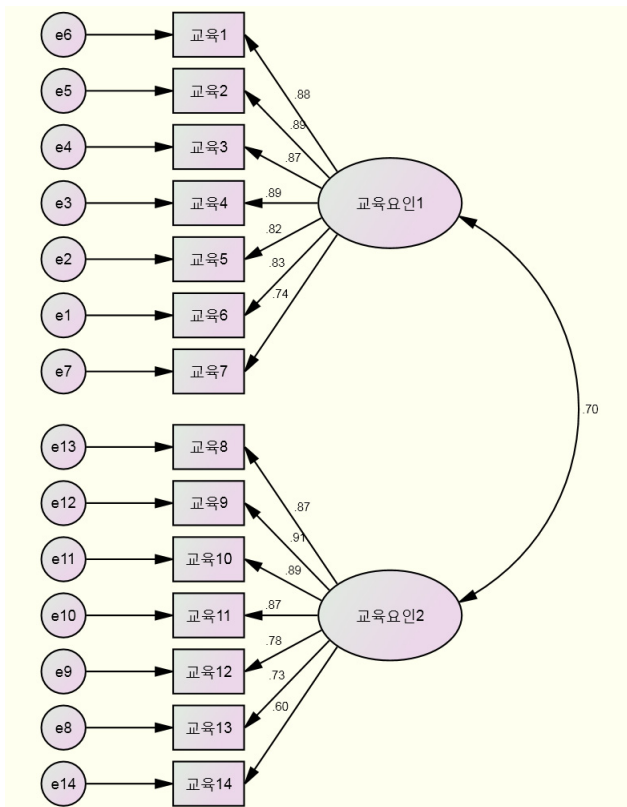
[그림 1] 교과지식 전문성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2)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육지식 전문성

교육지식 전문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2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2요인 구조가 지지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을 통해 추정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TLI=.951, CFI=.965, RMSEA=.076으로 나타났다. 즉, 적합도 지수를 통해 살펴본 이 연구의 모형은 괜찮은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와 모형은 다음의 <표 14>, [그림 2]와 같다.

<표 14> 교육지식 전문성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모형	151.392	76	.951	.965	.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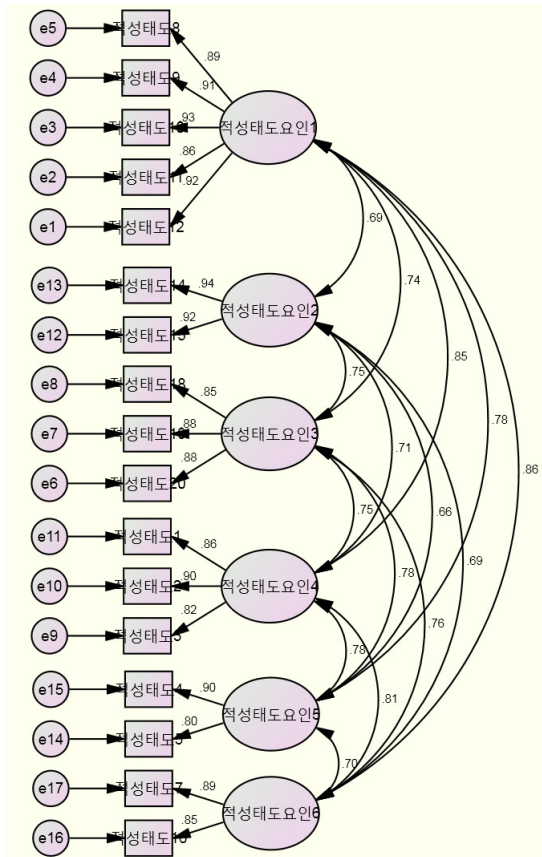
[그림 2] 교육지식 전문성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3)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적성 및 태도

교사 적성 및 태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6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6요인 구조가 지지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모형을 통해 추정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TLI=.956, CFI=.970, RMSEA=.069로 나타났다. 즉, 적합도 지수를 통하여 살펴본 이 연구의 모형은 괜찮은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와 모형은 다음의 <표 15>, [그림 3]과 같다.

<표 15> 교사 적성 및 태도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모형	190.759	104	.956	.970	.069



[그림 3] 교사 적성 및 태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2.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의 신뢰도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1회 측정으로 문항의 신뢰성을 추정하는 내적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중에서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표 16>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의 신뢰도

대영역	중영역	문항수	Cronbach's α 계수
교과지식 전문성	교과지식 요인 1	6	.926
	교과지식 요인 2	4	.904
	전체	10	.937
교육지식 전문성	교육지식 요인 1	7	.945
	교육지식 요인 2	7	.921
	전체	14	.942
교사 적성 및 태도	적성태도 요인 1	5	.956
	적성태도 요인 2	2	.925
	적성태도 요인 3	3	.901
	적성태도 요인 4	3	.884
	적성태도 요인 5	2	.836
	적성태도 요인 6	2	.856
	전체	17	.963
	전체	41	.974

<표 16>에서 보듯이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97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영역별 신뢰도를 보면, 교과지식 전문성 요인은 .937, 교육지식 전문성 요인은 .942, 교사 적성 및 태도 요인은 .963으로 나타났다. 중영역별 신뢰도를 보면, 교과지식 전문성의 요인 1(연주능력: 기악 및 가창 능력)은 .926, 요인 2(음악[국악]교과 관련지식 및 교사의 전공영역 외 음악[국악]관련 배경지식)은 .904로 나타났고, 교육지식 전문성의 요인 1(학습[수업]실행)은 .945, 요인 2(음악[국악]영재교육 관련 전문지식)은 .921로 나타났다. 교사 적성 및 태도의 요인 1(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애정)은 .956, 요인 2(적극적 경청과 소통하기)는 .925, 요인 3(자기개발노력)은 .901, 요인 4(교직가치에 대한 신념)는 .884, 요인 5(교직에 대한 소명의식)는 .836, 요인 6(학습자의 인권과 의견을 존중+바른 문법과 단어의 사용 혼합)은 .856으로 나타났다.

V. 종합적 논의 및 결론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 개발은 교사의 역량 수준 평가를 통해 최적의 영재담당교사를 가려내고 해당 교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성공적인 교육 결과 산출의 핵심 요인인 교사 역량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초기 구성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은 델파이 기법에 의하여 수렴된 전문가들

의 의견으로, 3개의 대영역, 8개의 중영역, 18개의 소영역 지표 및 그에 해당하는 88개의 문항이었다. 이 문항에 대한 구인타당화를 위하여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추정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첫째, 음악(국악)영재 교과지식 전문성은 ‘연주 능력(가창 및 기악 능력), 음악(국악)교과 지식 및 교사의 주 전공 외 음악(국악)관련 배경지식’의 2개 요인으로 묶였다. 즉, 중영역인 음악(국악)교과에 대한 지식 및 음악(국악)연주 능력은 요인 분석의 결과 지지되었다. 그러나 소영역을 보면, 초기 설정 시 구분되었던 음악(국악)교과 지식과 교사의 전공영역 외 음악(국악)관련 배경지식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고, 청음능력은 채택되지 않았다. 비록 요인분석의 결과 교과지식 전문성의 세부 속성에서 배제되었지만 청음능력은 교사가 지녀야 할 주요 속성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교사가 지녀야 할 역량으로 청음능력을 채택할지의 여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음악(국악)영재 교육지식 전문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학습(수업) 실행, 음악(국악)영재교육 관련 전문지식’의 2개 요인으로 묶였다. 즉, 문항개발 초기 중영역으로 설정한 학습자 특성 이해 및 학습(수업) 이해의 지표 중에서 후자인 학습(수업) 이해 부분만 지지되었고 학습자 특성 이해 관련 문항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또한 소영역을 보면, 상기에서 묶인 2개 지표를 제외한 학습자의 음악적 발달과 개인차 이해, 학습(수업) 준비, 수업 평가 및 활용 지표는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다. 학습(수업) 이해는 학습(수업)준비, 학습(수업)실행, 수업 평가 및 활용, 음악(국악)영재 관련 전문지식의 소영역으로 최초 구성되었으나, 요인분석의 결과 학습(수업) 준비 및 평가 지표는 학습(수업) 실행에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학습자의 음악적 발달과 개인차 이해는 교사가 마땅히 지녀야 할 교육지식 전문성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요인으로 묶이지 않은 것이 특이하다. 이 부분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적성 및 태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애정, 적극적 경청과 소통하기, 자기계발 노력, 교직가치에 대한 신념,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 학습자의 인권과 의견 존중+바른 문법과 단어의 사용’의 6개 요인으로 묶였다. 즉, 초기 설정한 소영역 지표 중에서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믿음과 기대, 교사효능감이 제외되었고 나머지 지표는 모두 지지되었다.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믿음과 기대는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애정 지표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교사효능감의 경우, 다른 소영역과 그에 해당되는 세부 특성들을 모두 아우르는 속성이자 그 결과물로 산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은 되지만,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주요 속성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교사효능감을 세부 특성으로 투입할지의 여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의 인권과 의견 존중에 해당되는 문항과 바른 문법과 단어의 사용에 해당되는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 것도 특징이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최종 수립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역량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

<표 17>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역량 지표

대영역	소영역
교과지식 전문성 (10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국악)교과 지식 및 교사의 주 전공 외 음악(국악)관련 배경지식 ■ 연주 능력(가창 및 기악 연주 능력)
교육지식 전문성 (14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수업) 실행 ■ 음악(국악)영재교육 관련 전문지식 ■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애정 ■ 적극적 경청과 소통하기
교사 적성 및 태도 (17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계발 노력 ■ 교직가치에 대한 신념 ■ 교직에 대한 소명 의식 ■ 학습자의 인권과 의견 존중 + 바른 문법과 단어 사용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음악(국악)영재 교과지식 전문성, 교육지식 전문성, 교사 적성 및 태도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연구의 모형은 모두 괜찮은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또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에 대한 문항신뢰도(Cronbach's α 계수) 추정 결과, 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가 .974로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써 평가문항의 실제 교육현장 투입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 및 종합적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을 구성하는 3개의 대영역, 7개의 중영역(초기 설정한 8개의 중영역 중에서 학습자의 음악적 발달과 개인차 이해 지표 삭제), 10개의 소영역(<표 17> 참고) 지표는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속성이다. 따라서 상기 평가지표는 최적 조건의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를 선발할 때 활용될 수 있다.

교사의 자기보고식 방법을 활용하는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은 현재 음악(국악)영재교육에 투입된 교사와 향후 담당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일선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지이다. 국내의 경우 교사관찰·추천제가 실시됨에 따라 예술영재를 선별해야 하는 일선 학교 교사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은 교사가 예술영재 담당교사로서의 자격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일반학교 교사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환언하면 평가문항에 대한 교사의 자기보고 결과가 어느 정도 확보된 교사에게 음악(국악)영재의 선별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이 일반 교육현장에서 야기되는 예술영재 선별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지임을 반영한다.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은 담당교사의 현재 역량 수준을 평가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평가지이다. 높은 수준의 음악(국악)영재 교과지식과 교육지식 전문성, 교사적성을 지닌 교사를 찾기는 쉽지 않다. 환언하면 모든 문항에서 5점에 해당되는 자격을 지닌 교사는 드물 것이다. 평가문항 구성의 최종 목적은 교사의 현재 역량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넘어서 향후 교사 교육을 통해 해당 지표(기준)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에 있다. 즉, 특정 교사가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

가문항을 자기 보고했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 해당 교사가 지닌 강점 및 약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교사는 평가지를 기록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의 최종 목적은 영재담당 교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그에 따라 해당 교사가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있다. 교사가 더 많이 노력할수록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의 세부 지표에 대한 반응 점수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최적 역량을 지닌 영재담당교사는 영재 선별 및 판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조건이다.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문항은 최적의 조건을 지닌 교사를 선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성공적인 예술영재 교육 결과의 산출을 위한 토대가 되어 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휘 (1996). **영재학생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필요충분조건들: 가정 · 영재자신 · 학교의 역할**. 서울: 원미사.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경희, 서혜애 (2007). 영재교육 교사전문성의 구성요소 탐색연구. **영재교육연구**, 17(1), 77-98.
- 박창언, 서혜애(2010). 영재교육기관 교원자격에 관한 법 규정의 검토. **영재교육연구**, 20(1), 231-256.
- 성태제 (2005). **현대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 원영실 (2011). 음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교사관찰정보지의 개발 및 적용. **음악과 문화**, 25, 147-176.
- 원영실 (2013).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교사관찰정보지(OSTG)의 구인타당화. **영재교육연구**, 23(1), 1-24.
- 원영실, 김은경 (2014).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 개발. **영재교육연구**, 24(2), 191-215.
- 한국교육개발원 (2011).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사 관찰추천제 바로 알기**. 한국교육개발원 학부모자료집.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Croft, L. J. (2003). Teachers of the gifted: Gifted teachers. In N. Colangelo & G. A. Davis(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Boston, MA: Pearson.
- Karnes, F A., & Stephens, K. R. (2008). *Achieving excellence: Educating the gifted and talented*. Old Tappan, NJ: Pearson Education Inc.
- Vidergor, H. E., Eilam, E. B. (2012). Israeli teachers' perception of gifted teachers' desired characteristics: *A case cultural orientation*. *Roeper Review*, 34(1), 26-37.

= Abstract =

The Construct Validation of the Scale for Screening the Qualified Teachers for the Gifted in Music

YoungSil Won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Teachers in music(including Korean traditional music) gifted education are a significant variable in both identifying the giftedness of students and a successful i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Scale for Screening the Qualified Teachers for the Gifted in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SSQTGM), and to examin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SQTGM.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administered the SSQTGM to 175 teachers of gifted students aged between 13 and 15 in middle schools for the arts. To validate the SSQTGM, I analyzed the criteria of the SSQTGM, and conducted an exploratory and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I also examined an internal consistency. As a result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 finally collected 41 items of the SSQTGM. Futhermore, I could identify psychological constructs of the qualified teachers for the gifted in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In consequence of the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the model provided a good fit to observe data. As a result of the reliability analysis, the internal consistency of knowledge in the music(korean traditional music) verified cronbach's $\alpha=.937$, and the expertise of the class management and instruction verified cronbach's $\alpha=.942$. Also, the teachers' aptitude and personality verified cronbach's $\alpha=.963$. This result of the construct validation reflects the fact that the SSQTGM is an available scale that can be applied in gifted education field instantly.

Key Words: Teachers in music gifted education, Teachers in Korean traditional music gifted education, The scale for screening the qualified teachers for the gifted in music(korean traditional music), Construct validation

1차 원고접수: 2015년 3월 6일
수정원고접수: 2015년 4월 14일
최종게재결정: 2015년 4월 14일

[부 록]

문항내용에 대하여 교사 본인이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매우그렇지않다(1점), 그렇지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그렇다(5점)**중, 해당되는 란에 **√**표시로 체크하십시오.

1.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과지식 전문성

문항 번호	세부 문항	해당 정도				
		1	2	3	4	5
1	교사는 음악(국악)교과의 기초 지식 및 이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2	교사는 음악(국악)교과의 주요 사조와 철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3	교사는 음악(국악)교과의 구조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4	교사는 음악(국악)교과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습득한다					
5	교사는 독보 및 기보 능력을 가지고 있다					
6	교사는 일반 음악교사보다 높은 수준의 변주 능력을 가지고 있다					
7	교사는 앙상블과 합주를 잘 지도할 수 있다					
8	교사는 새로운 음색을 만들 수 있다					
9	교사는 악곡을 재해석하여 독창적(교사개인의 생각과 감정, 정서를 음악적으로 구성하여)으로 연주(가창 및 기악)한다					
10	교사는 일반 음악교사보다 높은 수준의 멜로디 재현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교육지식 전문성

문항 번호	세부 문항	해당 정도				
		1	2	3	4	5
11	음악(국악)영재 수업 시, 교사는 학습의 촉진자 역할을 담당한다					
12	수업 시, 교사와 영재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13	교사는 음악(국악)영재에서 적절한 교육적 지원과 피드백을 제공한다					
14	교사는 영재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15	교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16	수업 시, 교사는 영재에게 적절한 질문을 한다					
17	교사는 수업의 방향 및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자의 의견을 묻고 반영한다					
18	교사는 음악(국악)영재의 선별 및 판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19	교사는 음악(국악)영재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20	교사는 음악(국악)영재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해한다					
21	교사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다					
22	교사는 미성취 음악(국악)영재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음악(국악)영재에 대하여 알고 있다					
23	교사는 우리나라 영재교육 정책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24	교사는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를 해본 적이 있다					

3.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적성 및 태도

문항 번호	세부 문항	해당 정도				
		1	2	3	4	5
25	교사는 학생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6	교사는 영재에게 강조한 가치 및 신념을 스스로 지킨다					
27	교사는 영재교육에 대한 교육철학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28	나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29	나는 교직에 대하여 기꺼이 헌신한다					
30	교사는 영재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자율성을 존중한다					
31	교사는 음악(국악)영재를 사랑으로 대한다					
32	교사는 영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노력한다					
33	교사는 영재의 진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34	교사는 음악(국악)영재의 성장한 모습을 통해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35	교사는 음악(국악)영재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한다					
36	교사는 동료교사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37	교사는 동료교사들과 협력한다					
38	교사는 긍정적 언어와 표현을 사용한다					
39	교사는 교육현안의 주요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0	교사는 학회 및 교사연수, 음악회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음악(국악)영재교육과 관련된 최신 이론 및 동향을 파악한다					
41	교사는 음악(국악)영재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